

전국 수의과대학 재학생 설문조사 분석을 통한 수의학교육의 발전을 위한 제언(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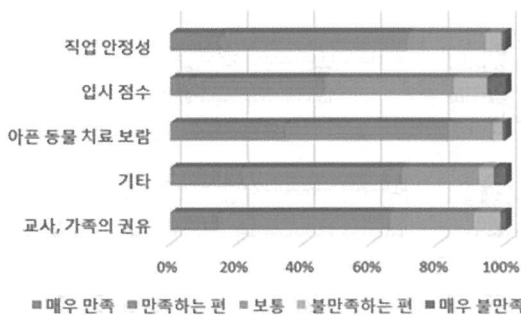


안재훈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본과 4학년
hun2wawa@hanmail.net

예과 1학년의 응답은 전체평균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본과 4학년의 결과는 평균과 상이하였습니다. 본과 4학년 같은 경우 '수의사의 사회적 지위 및 소득수준'이 불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3%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예과 1학년 52%에 비해 21%나 높은 결과입니다.

즉, 수의학과 입학 전과 저학년 때 인지하고 있었던 수의사의 사회적 지위나 소득수준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체감하는 것과는 상이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학생들이 수의학과가 '인풋(In Put)' 대비 '아웃풋(Out Put)'이 좋지 않은 것으로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는 수의학과 입학동기와 수의학과 입학한 것의 만족도를 교차분석한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17)과 같이 입시점수에 맞춰서 입학한 학생들의 수의학과 만족도가 뚜렷하게 낮았습니다.

표 17. 입학동기와 진로선택 만족도 교차분석



전문직종의 사회적 지위는 국가가 그 직종의 전문성을 얼마나 충분히 보장해 주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공중보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팽창하는 상황에 비해 수의사에 대

한 정책과 제도가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 설문 결과는 이에 기인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한수의사회나 기타단체, 그리고 많은 선배님들께서 힘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리며 수년 뒤에 다시 위와 같은 설문을 했을 때는 긍정적인 결과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학 만족도

다음은 대학만족도 부분입니다. 각각 교육시설, 편의시설, 커리큘럼, 교수진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 학교 평균 5점 만점에 그림 18)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저조하였는데, 이는 수의대의 단과대학 규모가 작기 때문에 편의시설 설비에 대한 대학 지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임으로 판단됩니다.

표 18. 전체평균 대학만족도

항 목	만족도(5점만점)
교육시설	3.23
편의시설	2.88
커리큘럼	3.18
교수진	3.39
종합평균만족도	3.17

학교별 만족도를 모두 공개하는 것은 자칫 서열화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어 최고, 최저 학교만 언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시설 만족도의 경우 충북대가 4.0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대가 2.48로 가장 낮았습니다. 편의시설 만족도 역시 충북대가 3.74로 가장 높았고 전남대가 2.38로 가장 낮았습니다. 커리큘럼 만족도는 충북대가 3.58로 가장 높았고 경북대

가 2.47로 가장 낮았습니다. 교수진 만족도는 충북대가 3.83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대가 2.79로 가장 저조하였습니다.

교과목만족도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에서 교육역량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교과목'에 대해 각각 기초수의학, 예방수의학, 임상수의학으로 나눠 설문한 전체 평균 결과입니다.

표 19. 기초과목 중 교육역량이 가장 부족한 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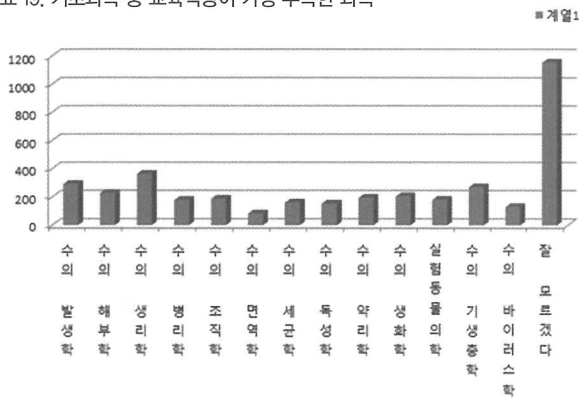


표 20. 예방과목 중 교육역량이 가장 부족한 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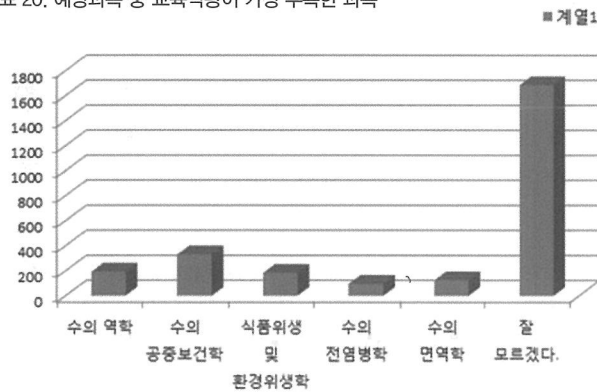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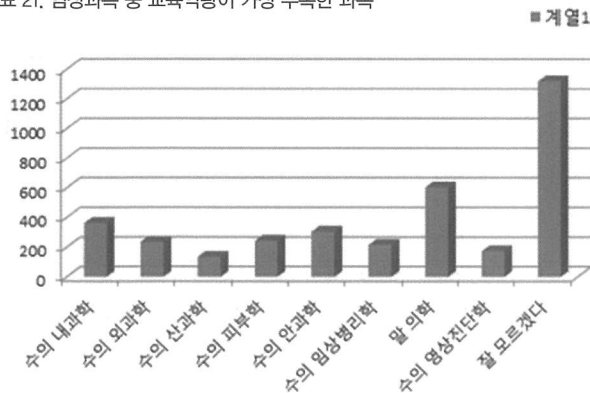


표 21. 임상과목 중 교육역량이 가장 부족한 과목



위와 같은 결과는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의 강의력에 많이

기인하기 때문에 전체평균의 결과 값은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의 결과를 학교별로 분석해 보면, 어느 학교 어떤 교과목 담당교수님의 교육능력이 가장 떨어지는지는 확인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말 의학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학생들 역시 교육역량의 부족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수의과 대학의 인프라로는 효율적인 교육이 힘들기 때문에 한국 마사회와의 협력 등을 통해 많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문 문항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학 용어 중 히든 커리큘럼 (Hidden curriculum) 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회나 집단에서 가치나 신념, 도덕, 규범 같은 것들이 발언이나 행동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다른 구성원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임상 교과목 수업 중 환축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이 환축은 결국 사망하였고 보호자가 굉장히 많이 슬퍼하였다. 나 역시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라고 강연자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들은 학생들은 '나도 임상을 하게 되면 저런 상황을 수없이 많이 겪게 될텐데, 어느 순간부터는 무너져서 동물의 생명존중 가치를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항상 상기하면서 살아야겠다.' 라던가 '보호자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수의사가 되어야겠다' 등의 가치를 이끌어 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히든 커리큘럼'입니다. 그리고 이는 정규 커리큘럼보다 피교육자에게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다른 의학계열 대학도 마찬가지이지만 수의대는 일반 대학과는 다르게 교수와 학생의 관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 까닭에, 수의학 교육과정에 있어서 이 '히든 커리큘럼'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즉, 수의대 교수님들은 학업적인 것 외에도 학생들의 삶의 태도나 성격, 심지어는 그들의 가치관과 인생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매년 50명씩, 교수 정년 약 20년이면 1000여명의 학생들이 한 교수를 거쳐 사회에 진출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교수명패 하나가 짙어진 학생들의 맘과 눈물의 무게,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대학과 교수와 학생이 삼위일체가 되어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교육의 장을 만들어 나가기를,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수의계와 국가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꿈꾸어 봅니다. ▽